제1장 총칙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은 표준 발음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표준어로 규정된 단어들의 실제적인 발음을 따르는 것이며, 이때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현대 서울말의 현실 발음을 기반으로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원리는 겹받침의 발음 규정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국어의 겹받침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오지 않는 한 겹받침 중 한 자음이 탈락해야만 한다. 그런데 겹받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탈락 자음을 정하지 않고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탈락 자음을 정한다. 가령 'ㄺ'의 경우 용언 어간에 국한하여 '읽고[일꼬], 읽거든[일꺼든]'과 같이 'ㄱ' 앞에서는 'ㄱ'이 탈락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ㄹ'이 탈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ㅥ'의 경우도 단어에 따라 달라져서 '밟다'에서는 'ㄹ'이 탈락하고 '넓다'에서는 'ㅂ'이 탈락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모두 서울말의 현실 발음을 감안한 결과이다.

복수 표준 발음을 널리 허용하는 것도 실제 발음을 고려한 결과이다. 'ㅚ, ㅟ'를 단모음과 이중 모음 모두로 발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이중 모음 'ㅢ'의 여러 발음을 허용한 것 등 현행 표준 발음법에는 둘 이상의 발음을 표준으로 규정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하나의 단어에 원칙 발음과 허용 발음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것은 실제 발음에서 보이는 다양한 발음상의 변이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표준어의 모든 실제 발음을 표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실제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하도록 하였다. 즉 전통성과 합리성에 위배된다면 실제 나타나는 발음이라도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전통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내려오던 발음상의 관습을 감안한다는 의미이다. 전통성을 고려한 표준 발음의 예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모음의 장단과 관련된다. 현실 발음에서는 모음의 장단이 정확히 구별되지 않거나 모음의 장단과 관련된 변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음의 장단은 이전부터 오랜 기간 구별되어 왔으며 단어의 의미 변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서는 모음의 장단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두었다. 특히 장단의 변동 또는 장모음의 위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전통성을 고려한 표준 발음 제정의 또 다른 예로는 단모음 'ㅐ'와 'ㅔ'의 구별을 들 수 있다. 'ㅐ'와 'ㅔ'는 원래 명확하게 구별되는 단모음들이었지만, 현재는 일부 지역의 노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단모음을 명확히 구별하여 발음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한다. 'ㅐ'와 'ㅔ'를 구별하지 못하여 표기 실수를 많이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단모음은 오랜 기간 별개의 단모음으로서 그 지위가 확고했고 여전히 구별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전통을 감안하여 표준 발음법에서는 'ㅐ'와 'ㅔ'를 항상 다르게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성 이외에 합리성도 실제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령 '닭, 흙, 여덟'과 같이 겹받침을 가진 체언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 겹받침 중 하나를 연음해야 하므로, '닭이[달기], 닭을[달글], 닭은[달근]', '흙이[흘기], 흙을[흘글], 흙은[흘근]', '여덟이[여덜비], 여덟을[여덜블], 여덟은[여덜븐]'으로 발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현실 발음에서는 오히려 겹받침 중 하나를 탈락시켜 '[다기], [다글], [다근]', '[흐기], [흐글], [흐근]', '[여더리], [여더를], [여더른]'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발음은 합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맛있다, 멋있다'의 원칙 발음을 '[마딛따], [머딛따]'로 정한 것도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뒤따르는 경우에는 받침 'ㅅ'이 대표음인

[ㄷ]으로 바뀌는 것이 국어의 발음 규칙이므로 '[마딛따], [머딛따]'가 합리적인 발음이다. 다만 '맛있다, 멋있다'를 '[마싣따], [머싣따]'로 발음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여 이 경우에는 실제 발음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했다.